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2000년 10월, '이재록 목사 초청 파키스탄 연합대성회'를 시작으로 회교국 파키스탄에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2)

구세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토지 무르기 법칙을 통해서도 깨우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 고벨료를 통해 가족 복음화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축복의 비결을 살펴본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

생명의 말씀을 찾아 온 이명임 권사와 가족, 좌측편마비를 치료 받은 페루 아마도로 세르나 아구에로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737호 2016년 5월 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회교국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2016 길태식 목사 초청 파키스탄 순회 집회 열려



지난 4월 5~11일, 강사 길태식 목사(사진 상단 왼쪽)는 파키스탄 5개 도시 구즈란왈라(사진 1~2), 라호르(사진 3~5), 이슬라마바드(사진 6~8), 퀘타(사진 9~11), 카라치(사진 12~15)에서 대학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 목회자 세미나 등을 인도하였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고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줄 때 갖가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슬람공화국 파키스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치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 교회 파키스탄 선교는 2000년 10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개최된 연합대성회 이후 더욱 활발한 선교 사역을 펼치며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로 수많은 회교도가 회심하여 기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 가운데 길태식 목사(대전만민교회 담임)는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파키스탄 전역에서 집회와 세미나를 인도함으로써 성령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힘

있게 전파해 왔다. 지난 4월 5~11일에는 ‘2016 길태식 목사 초청 파키스탄 순회 집회’가 있었다. 파키스탄의 5개 도시인 라호르, 이슬라마바드, 카라치, 퀘타, 구즈란왈라에서 다섯 번의 대학 세미나와 두 번의 손수건 집회,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였고, 총회장 및 주요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집회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의 사역이 담긴 ‘권능 DVD’ 상영 후, 강사 길태식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에 대해 증거하였다. 이어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갖가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케나(60, 사진 13) 성도는 10년 전부터 초자체 변성(눈동자 뒤쪽에 검정색 물이 있음)으로 앞을 볼 수 없었고 수술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기도받은 즉시 시력이 회복되었으며, 이르판(47, 사진 14) 성도는 목 디스크 수술 후 목 보호대를 사용했으나 기도받은 즉시 잘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기도받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해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유방암 증세가 사라졌다는 대학생(사진 6)과, 이삭TV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은 후 어릴 적부터 고통받던 방광 문제를 치료받았다는 성도(사진 10)도

있었다. 이번 아니라 장티푸스, 고혈압, 당뇨병, 피부병, 위장장애 등 치료받은 간증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집회에 참석한 총회장 및 주요 목회자들은 만민의 선교 사역에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성령의 말씀을 배우기 원한다고 고백하였으며, 재차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파키스탄 순회 집회를 마친 길태식 목사는 그동안 교회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한 바 있는 두바이에서 4월 12일,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향후 중동 선교 일정을 협의하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2)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2)

나 마음으로는 단 한 번이라도 범죄한 사람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후손이 아니므로 원죄가 없고, 태어나서부터 온전히 말씀을 지켜 행하셨기에 자범죄도 전혀 없으십니다(히 7:26 ; 뵤전 2:22).

오직 예수님만이 원수 마귀 사단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고,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율법의 저주에도 매이지 않으시지요. 죄가 없으시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영적인 권세로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계의 법칙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으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치면 순종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들을 무수히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질병으로 병원비와 약값이 끊이지 않았지만 주님을 영접한 후 말씀 안에 거하니 온 가족이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지요.

또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기도할 때 암이나 백혈병, 에이즈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불구자도 건전케 되며, 연탄가스가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등 놀라운 역사들이 늘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세주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인이라 불리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도 모두 범죄한 아담의 후예로서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지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기에 예수님만이 구세주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 예수님은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빛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되었을 때 부유한 형이 빛을 갚으면 벌을 받지 않

아도 됩니다. 그런데 형이 부자라도 동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동생을 사랑할 때야야 손해를 보더라도 동생의 빛을 갚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무르기 법칙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토지를 팔게 되었을 때 부유한 근족이 있다 해도 그가 사랑으로 상대를 돕고자 해야 토지 무르기가 성립되는 것처럼,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서의 세 가지 자격 조건을 다 갖추셨어도 만일 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든지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들을 대신해 사망의 형벌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당해야 합니다. 더구나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온갖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처형당해야 하지요.

세상에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는 단지 대신해서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계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나무에 달려야 하며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저주란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온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영계의 법칙에 의해 범죄한 사람에게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으니 구세주가 율법의 저주에서 인류를 해방시킬 방법도 영계의 법칙을 따라야 하지요. 곧 저주받은 사람이 달려야 할 나무 십자가에 구세주가 대신 달려 죽어야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피는 생명과 일체이므로 구세주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인들이 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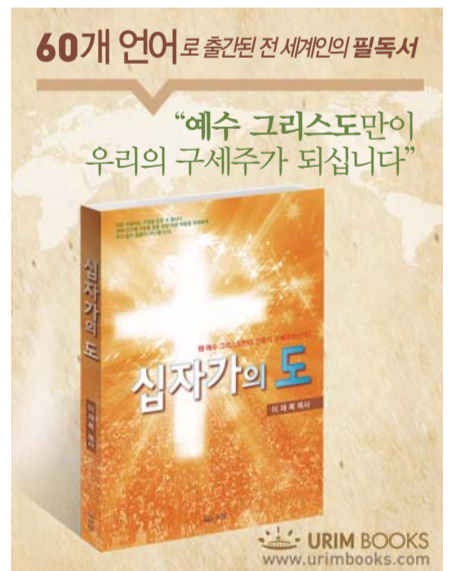
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지요.

아무나 나무에 달려 피를 흘려준다고 해서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속할 수 있는 구세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야 하지요. 곧 죄성이 전혀 없는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한 피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 그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상대를 더 사랑할 때 그런 희생을 기꺼이 치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어야 구세주가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주심으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롬 5:7~8).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며, 자신들을 위해 오신 구세주를 못 박아 죽이는 죄인들에게도 생명까지 내어주신 진실한 사랑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 깨닫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참 믿음을 소유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지난 호에서 이스라엘의 토지 무르기 법칙(레 25:23~27)에 합당한 구세주의 자격 조건은 첫째로 육신을 입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범죄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도 구세주의 자격 조건 두 가지를 통해 예수님만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간 동료를 구하려면 적군을 이길 힘이 있어야 하듯이 원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들을 지배할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곧 영계에서의 힘은 죄가 없는 데서 오며,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죄가 없이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며 자범죄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아무리 악해도 행함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이지요(마 5:28 ; 요일 3:15). 따라서 행함으로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비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
 이 말씀은 가족 중 한 사람만 주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족 복음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 따르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의 삶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룬 응답과 축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비결 1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며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기에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 고넬료를 중심으로 가족이 하나 되어 그 말에 순종하니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는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기에 가족에게 권면하고 전도한다곤 하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자신이 그만큼 가족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먼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과 진리,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한다면 자녀들도 자연히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 만일 가족을 힘들게 하던 가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가족의 말을 잘 듣고 그 마음에 맞춰 사랑해 간다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것은 '말하는 습관'이다. 자녀에게 “이거 해라.”고 명령하는지, “네가 이걸 도와주면 아빠 엄마에게 힘이 되겠다.”라고 표현하는지 살펴보자.

만일 자녀가 반복적으로 잘못 하는 일이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감정이 격해져 과장하거나 이 일과 상관 없는 예전 잘못까지 들추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짚어주되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차분히 설명함으로 스스로 자신의 잘못과 그릇된 결과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네가 정말 잘되기를 원한다.”는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때 아무리 마음이 단단히 굳은 자녀라 해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꾸준히 사랑으로 행할 때 가족의 마음이 점점 녹아져 사랑을 느끼며 신뢰하게 된다.

비결 2

마음에 있는 선을 말과 행실로 나타냄으로 덕을 쌓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의 악이 버려지고 선이 임하는 만큼 입술의 말이나 행실에서도 선이 나온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편안함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착한 행실, 덕과 사랑의 행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선하고 덕스러운 고넬료의 행실은 특히 '구제'라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구제는 물질이 넉넉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고넬료는 지배국의 백부장이면서도 피지배국의 백성을 사랑하여 구제했기에 유대 온 족속에게 그의 진심이 전달됐다.

사랑 없는 구제는 진정한 구제라 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물질로 구제해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구제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마 6:3~4). 이처럼 범사에 선을 쌓는 것은 중요하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과 행함으로 선을 쌓는 것이 응답을 앞당기는 비결이 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는 것과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힘이 되어 주는 것은 매우 다르다. 상대가 어떤 것을 잘했을 때 마음으로만 함께 기뻐하는 것과 칭찬과 축하의 말을 하는 것 또한 다르다.

작은 선물 하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많은 차이가 난다. 또 행함으로 하는 것과 말로만 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응답과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범사에 선을 쌓아가야 한다.

비결 3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깨달아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

선한 말과 행실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그 자체로 구원 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며(은 2:9),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고 했다(잠 16:1).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온 영(살전 5:23)의 마음을 이루면 마음에 계획하고 품는 것들이 진리이고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그 뜻과 일치된다. 따라서 경영하는 것이 진리이고 선이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 응답으로 오게 된다.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도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간절히 찾는 고넬료를 만나주셨고, 사랑하시는 증거로 응답과 축복을 주셨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함께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함으로 공의에 합당한 조건을 갖춘다 해도 결국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하며, 응답받기 위한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한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중심으로 부르짖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신다. 또 응답과 축복의 가장 좋은 때도 아시기에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여 가족 복음화는 물론,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기를 바란다.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5.8~ 5.14

Thank You and Love You

이재복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믿음을 척량하시니 1-5 ■ 선 2
- 마음발을 개간하자 1-2 ■ 신뢰
- 3차 영혼육 7-11 ■ 믿음의 분량 2-6
- 창세기 강해 26-30
- 위로부터 난 지혜 8-9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2-15
- 요한계시록 강해 106-112

GCN TV설교

- 팔복 6 (이수진 목사)
- 지혜 4 (이미영 목사)
- 막달라 마리아 2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5 (이희선 목사)
- 율기 강해 4 (신동호 목사)
- 열재앙 23 (정구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5 (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5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53
- 내 마음의 찬양 21
- 창조와 과학 26 ■ English 11
- 모두 드려요 42 ■ 뷰티풀 라이프 11
- 즐거운 요리 21 ■ 흥겨운 소리 8
- 옛날 옛적에 6 ■ 플로리스트 14

해외성회 프로그램

- 독일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은 길 41
- 회상 (시즌2) 7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평생 사모하던 생명의 말씀, 온 가족이 변화되었어요!”

이명임 권사 (49세, 광주만민교회)



▲ 이명임 권사(둘째 줄 오른쪽)와 함께 광주만민교회에 등록한 일가친척 (둘째 줄 왼쪽이 남편 권광욱 장로, 그 뒤가 장남 시은, 오른쪽으로 차남 지훈, 삼남 진주 형제)

저는 스무 살이 되던 1987년 5월, 직장 언니의 전도로 교회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신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 성경도 여러 번 읽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은 저를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행하며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를 열심히 찾았지요.

2015년 8월, 우연히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동영상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동안의 의문점들이 다 풀렸지요. ‘창세기’ 강해 설교 동영상도 보았는데 그 역시 놀랍고 명쾌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이재록 목사님께서 나타나 “조금 어렵지?” 하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꿈을 통해 ‘이 말씀은 들어도 되겠구나.’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뒤 남편 권광욱 장로님과 함께 ‘천국’, ‘지옥’ 등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보았는데, 장로님도 성경의 막혔던 부분이 펴는 느낌이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확신이 왔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잠을 잘 때에도 쳐놓을 정도였지요.

저는 광주에도 만민중앙교회 지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성도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움을 느꼈지요.

또한 저희 가정도 만민의 성도들처럼, 하나님과 영혼들을 생명의 다해 사랑하는 목자의 공간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2015년 12월 13일, 드디어 저희 가정은 물론 시부모님과 친정 어머니, 큰오빠와 큰언니 등 12명이 함께 만민의 양 떼가 되었지요. 할렐루야!

갑작한 심령으로 생명의 말씀을 찾아 헤매던 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성령 충만해졌을 뿐 아니라 전도된 가족이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니 더욱 행복합니다.

시아버지 권상기 성도님은 퇴행성관절염으로 병원을 여러 곳 다녀 봐도 효과를 보지 못했고, 시어머니 양봉순 성도님도 왼쪽 팔의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으셨는데,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은 후 두 분 다 온전히 치료 받으셔서 건강하시지요.

큰 오빠 이재영 성도님도 오토

바이를 타고 가다 미끄러져 꼬리뼈 쪽에 수개월간 통증이 있었는데 기도받은 즉시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부를 놀라게 한 일은 시은(22), 지훈(20), 진주(16) 세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아침에 자고 있으면 깨워서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 준비한 뒤에 배에 늦지 않게 가야 한다며 저희를 재촉하지요. 또 잠깐 묵상 기도하는 게 전부였던 아이들이 지금은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예배와 기도가 너무 재미

있다고 고백합니다.

컴퓨터 게임도 끊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즐겨 읽으며 하나님 사랑을 느껴가는 것을 보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지.’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가 오허려 도전을 받습니다.

생명의 제단으로 인도받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온 가족이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소망으로 살아가니 오직 감사뿐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크신 은혜로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편마비를 치료받아 정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르 세르나 아구에로 성도 (54세, 페루만민교회)



저는 종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랜 가톨릭 신자였지만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행복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다투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가정이 화목할 날이 없었지요.

그러던 2012년, 아내가 페루만민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기에 핍박을 했지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 아내는 달라졌습니다. 전과 달리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대하며 교회에 같이 다니고 싶다고 말했지요.

2013년 7월, 아내의 변화된 행동과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도로 저는 페루만민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좌측편마비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저는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휠체어를 의지하면서도 교회에 다닌 지 몇 달 뒤, 감사하게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답답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는 다리에 힘이 주어져 더 이상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걸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제 몸의 반쪽은 반응하지 않아 몸을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료받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2014년부터는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질병의 원인이 제 강한 성격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무릎을 꿇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통증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해 나갔습니다.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가족을 생각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던 2014년 4월 3일, 만민 전(全) 지교회 총지도교사인 이희선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제 몸의 마비된 왼쪽이 풀리면서 움직여지더니 지금은 정상이 되었지요. 저희 가정에도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가족을 생각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던 2014년 4월 3일, 만민 전(全) 지교회 총지도교사인 이희선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제 몸의 마비된 왼쪽이 풀리면서 움직여지더니 지금은 정상이 되었지요. 저희 가정에도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